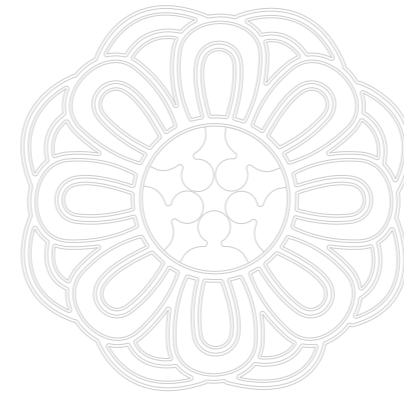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0년도 연간보고서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 SHARING KOREA'S BEST FINANCIAL PRACTICES & EXPERIENCES

## CONTENTS

### 04 발간사

### 06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06 설립배경 & 회원명부

08 연혁

### 16 회원기관 동정 : 한국거래소

### 18 2020년도 주요사업 보고

20 전문가 초청세미나 : 코로나 시대 금융기관 해외사업 추진전략

22 전문가 초청세미나 : 중앙아시아 금융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

24 전문가 초청세미나 :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

28 전문가 초청세미나 :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발전현황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방향

30 신북방국가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32 정례회의 및 기타활동

# 발간사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한국 금융의 발전 경험과 지식 교류를 통해 글로벌 금융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국내 34개의 기관이 모여 설립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발족 초기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게 집중됐던 금융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에 힘입어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 전 세계 950여 명의 금융전문가와 교류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 인프라 기관들인 22개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회원기관의 발전은 곧 한국금융의 발전이었고, 오늘날 이들의 글로벌 금융협력은 한국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원기관들은 때로는 협의회의 일원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한국 금융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의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글로벌 금융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금융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나아가, 기존 대면 형태의 글로벌 협력이 불가능해지고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회원기관들은 웨비나 개최, 온라인연수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고, 해금협 역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최대한 당초 목표했던 사업들을 진행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코로나 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글로벌 금융협력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들을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온라인 협력방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던 국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여 향후 도래할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금융협력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가고자 합니다.

회원기관의 변함없는 성원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협의회는 올해 설립 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더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2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박종규**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설립배경 & 회원명부

“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는 국내 22개의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 설립배경

해외금융협력협의회(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IFC)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의체입니다. 22개 회원기관들이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금융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 주요 협력기관들과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회원기관들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협력국가의 정책당국 및 협력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매년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PARTNERS



## 회원명부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 2013 주요사업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활동 시작

- 03 **워크숍** 제1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 04 **회의** 4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우리나라 경제·금융발전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역할」 발주
- 05 **회의** 5월 정례회의
- 06 **회의** 6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  
**세미나**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 07 **회의** 7월 정례회의
- 09 **기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  
**초청연수**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초청
- 10 **회의** 10월 정례회의  
**포럼** 우즈베키스탄 보험산업 발전 포럼
- 11 **회의** 2013년 정기총회  
**간담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 간담회
- 12 **강연** 국제결제은행 심일혁 박사 초청 강연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워크숍** 제2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 2014 주요사업

- 01 **초청연수**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 02 **회의** 2014년 정기총회
- 03 **회의** 3월 정례회의
- 04 **포럼** 제1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회의** 4월 정례회의
- 05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포럼** 한·미얀마·아시아개발은행 금융협력포럼
- 06 **회의** 6월 정례회의  
**연구사업** 「국내 금융의 성공적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발주
- 07 **회의** 7월 정례회의
- 08 **초청연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세미나
- 09 **회의** 9월 정례회의
- 10 **초청연수** 덴마크 Danske Bank 부사장 초청  
**회의** 10월 정례회의
- 11 **초청연수** 미얀마 Myanmar Insurance 초청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회의** 11월 정례회의
- 12 **포럼**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 2015 주요사업

- 01 **회의** 1월 정례회의
- 02 **회의** 2015년 정기총회
- 03 **회의** 3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IDB Korea Insights Program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은행권 초청
- 04 **회의** 4월 정례회의
- 05 **연구사업**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심층조사」 발주  
**연구사업**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발주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해외 진출 현장간담회  
**간담회**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지원  
**포럼** 제2회 한·영 민간 금융협력포럼 개최 지원
- 06 **워크숍** 제3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강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강연  
**기타** 금융세일즈외교를 위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수요조사
- 07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회사 해외 진출 간담회  
**회의** 7월 정례회의
- 09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 진출지원 간담회  
**회의** 9월 정례회의
- 10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 11 **회의** 11월 정례회의
- 12 **포럼**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 2016 주요사업

- 01 **회의** 1월 정례회의
- 02 **간담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해외 진출지원 간담회  
**회의** 2016년 정기총회
- 03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산하 알로카뱅크(Aloqabank) 초청  
**워크숍** 제4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워크숍  
**강연** 세계은행 송도사무소 Sameer Goyal 초청 강연  
**초청연수**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경제발전기획부, 건설부, 주택건설개발은행 초청  
**세미나** 미얀마 공무원 초청 주택금융세미나
- 04 **회의** 4월 정례회의
- 06 **포럼**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회의** 6월 정례회의
- 07 **초청연수** 미얀마 계획재무부 차관 초청  
**세미나** 한·미얀마 금융협력세미나  
**회의** 7월 정례회의
- 08 **초청연수**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태국 금융협력세미나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 09 **회의** 9월 정례회의
- 10 **회의** 10월 정례회의  
**초청연수**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  
**세미나** 한·이란 금융협력세미나
- 11 **회의** 11월 정례회의
- 12 **포럼**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 2017 주요사업

- 01 **회의** 부서장급 사전회의
- 02 **회의** 2017년 정기총회
- 03 **회의** 3월 정례회의  
**강연** 기획재정부 박종근 국장 초청 강연  
**강연**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모, 양은용 변호사 초청 강연
- 04 **회의** 4월 정례회의
- 05 **토론회**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해외금융협력협의회 공동 토론회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회의** 5월 정례회의
- 06 **초청연수**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초청  
**세미나**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세미나** 베트남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동향 세미나  
**간담회** 금융 인프라 수출 간담회  
**회의** 6월 정례회의
- 07 **공동연수**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포럼**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 08 **기타** CIFIC BiAnnual Vol. 1 발간
- 09 **공동연수** 한국신용정보원·NICE평가정보  
**회의** 9월 정례회의  
**포럼**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워크숍**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금융 워크숍
- 10 **회의** 10월 정례회의  
**포럼** 이란 자본시장포럼 및 투자유치 엑스포
- 11 **포럼**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회의** 11월 정례회의
- 12 **포럼**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공동연수** 금융결제원·해외금융협력협의회

## 2018 주요사업

- 01 **회의** 정기총회 사전회의  
**워크숍** 제4회 미얀마 주택금융 워크숍
- 02 **회의** 2018년 정기총회  
**기타** CIFIC BiAnnual Vol. 2 발간
- 03 **회의** 3월 정례회의  
**포럼**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 04 **회의** 4월 정례회의  
**기타** CIFIC Annual Report 2017 발간
- 05 **세미나** 세계은행 서울금융자문센터와의 협력방안  
**회의** 5월 정례회의
- 06 **세미나** 글로벌 금융 트렌트 파악 및 정부의 ODA사업 운영방안  
**회의** 6월 정례회의  
**공동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 08 **세미나**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한·캄보디아 협력강화방안 검토  
**공동연수** IBK기업은행·은행연합회  
**회의** 8월 정례회의  
**기타** CIFIC BiAnnual Vol. 3 발간
- 09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 10 **공동연수** 금융결제원·NICE평가정보  
**회의** 10월 정례회의
- 11 **공동연수** 한국신용정보원·KCB  
**회의** 11월 정례회의
- 12 **포럼**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공동연수**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  
**회의** 12월 정례회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연혁

## 2019 주요사업

- 01 회의** 2019년 정기총회  
**공동연수** 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02 회의** 2월 정례회의  
**기타** CIFIC BiAnnual Vol. 4 발간
- 03 회의** 3월 정례회의
- 04 세미나** 아시아개발은행 소개와 협력방안 공유  
**회의** 4월 정례회의  
**기타** CIFIC Annual Report 2018 발간
- 05 공동연수** 은행연합회 · 한국신용정보원 · IBK기업은행  
**회의** 5월 정례회의  
**세미나**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방안 검토
- 06 초청연수** 아르메니아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
- 07 공동연수** 한국거래소 · 코스콤  
**세미나** 디지털 공유결제 속 금융의 역할  
**공동연수**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세미나**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  
**회의** 7월 정례회의
- 08 공동연수**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기타** CIFIC BiAnnual Vol. 5 발간
- 09 포럼**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회의** 9월 정례회의
- 10 세미나** 보험산업의 변화와 미래  
**회의** 10월 정례회의
- 11 초청연수** 우즈베키스탄 해외공무원 · 금융관계자 초청  
**공동연수** 기술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의** 11월 정례회의
- 12 포럼**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회의** 12월 정례회의

## 2020 주요사업

- 01 회의** 2020년 정기총회
- 02 기타** CIFIC BiAnnual Vol. 6 발간
- 03 회의** 3월 정례회의
- 04 회의** 4월 정례회의  
**기타** CIFIC Annual Report 2019 발간
- 06 회의** 6월 정례회의
- 07 회의** 7월 정례회의  
**기타** CIFIC 브로슈어 발간  
**연구사업** 「카자흐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발주  
**연구사업** 「우즈베키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발주  
**연구사업** 「아제르바이잔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발주
- 09 세미나** 코로나 시대 금융기관 해외사업 추진전략  
**회의** 9월 정례회의
- 10 세미나** 중앙아시아 금융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  
**회의** 10월 정례회의
- 11 세미나**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  
**회의** 11월 정례회의
- 12 세미나**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발전현황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방향  
**회의** 12월 정례회의



## 회원기관 동정



###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연간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13년 3월 설립된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 "해금협")는 22개의 금융기관과 금융협회가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쌓아온 글로벌 금융협력 경험과 노하우를 회원기관과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해금협 회원으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진출과 금융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400여 기업의 상장주식과 채권·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ETP, 금·석유·온실가스배출권 등 일반상품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산업자금 조달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에게는 건전한 재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IMF경제위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지수 3,000포인트 시대를 열었고, 2020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1조 원으로 세계 7위 글로벌 종합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어 거래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시가 개설되지 않은 신흥국을 상대로 자본시장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전하는 교육·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OICA 및 EBR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등에 증시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65년 전 '배움을 받던 나라에서,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나라로' 성장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해금협과 함께 중남미 거래소 관계자 초청연수를 통해 국내 ESG사업 노하우를 전달하고 중남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축적된 증시개설 및 운영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해외 자본시장을 향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IT시스템을 포함한 한국형 증시 인프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태국 등 총 5개국에서 14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최초의 증권시장을 개설했고,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까지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금협이 주최한 베트남 증권감독위원회 및 자본시장 관계자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신남방 국가의 증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셋째, AOSEF와 UN산하 SSE Initiative 등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세계 70여 개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세계 거래소연맹(WFE) 이사로 7회 연속 선출되어 세계 거래소 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해금협은 전문가 초청세미나, 금융시장 개발 프로젝트 안내 세미나,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기관 및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해금협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간보고서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해금협과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





○  
**2020**  
주요사업보고

# 코로나 시대 금융기관 해외사업 추진전략

## 전문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0년 9월 25일(금)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코로나 시대 금융기관 해외사업 추진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코로나 시대에서 변화하고 있는 해외사업 환경을 파악하고 새로운 해외진출 전략 및 사업 진행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경험이 있는 PwC의 김정민 파트너를 발표자로 초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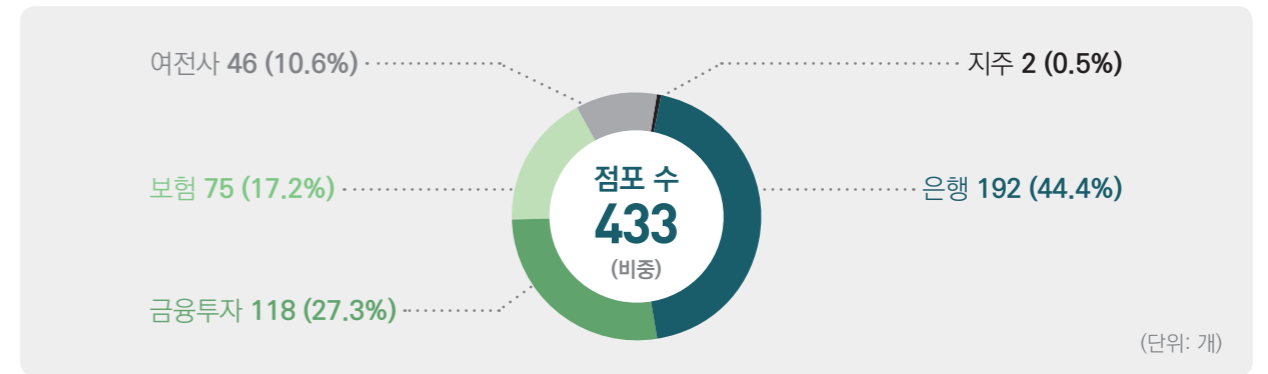
### 코로나 시대의 금융기관 해외 진출

김정민 | 파트너 | Pw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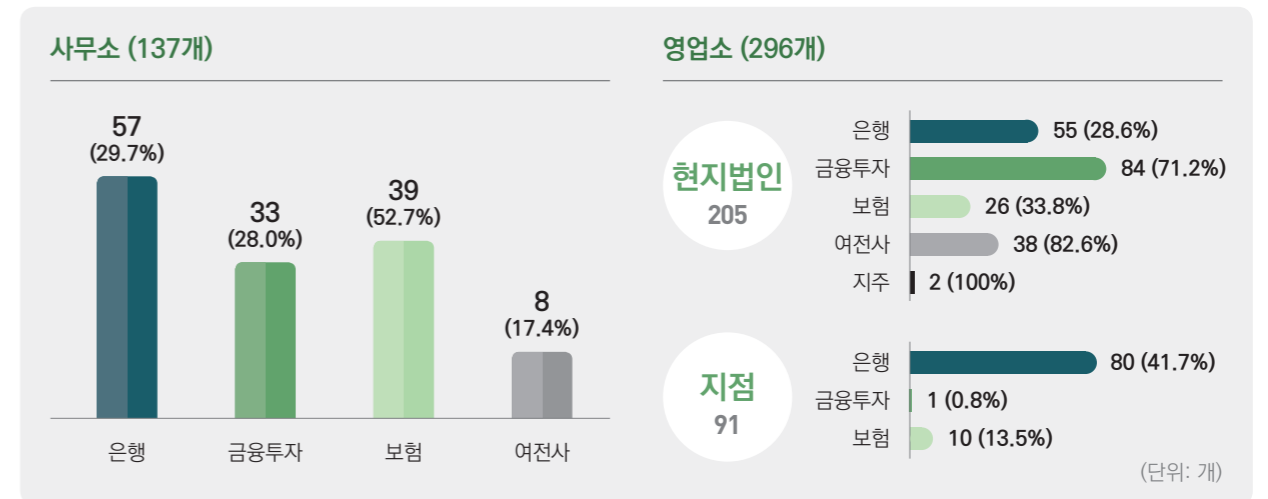


김정민 파트너는 코로나 시대의 금융기관 해외진출 발표를 통해 ① 코로나19 이전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현황, ② 코로나 시대 속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시 고려사항, ③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주요방향 등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코로나 이전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금융사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방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출해 왔으며, 특히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금융업종별 해외 점포 수



### 금융업종별 해외 진출 형태



또한, 김정민 파트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매출 감소 타격이 큰 조선, 항공,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기업 자금 확보 및 운전자금 수요로 기업대출 규모가 증가했으며 미국에서는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등 세계 경제의 전반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의 해외 진출 시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및 진출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를 들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정민 파트너는 향후 한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주요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인적교류를 줄이고 자본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시행착오와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은행 및 금융 비즈니스가 라이선스 및 규제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로 인해 생긴 저렴한 M&A 대상 매물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방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해당 지역에 특화된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과 제휴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진출 방안들을 설명하며 김정민 파트너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특화 플랫폼과 제휴하여 적극적인 M&A 확보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중앙아시아 금융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

전문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0년 10월 21일(수)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아시아 금융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중앙아시아 금융 인프라(지급결제, 금융보안, 신용정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의 Ahmed Faragallah 금융부문 선임 담당관과 KDB산업은행 오성엽 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 중앙아시아 지급결제시스템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

Ahmed Faragallah | 금융부문 선임 담당관 |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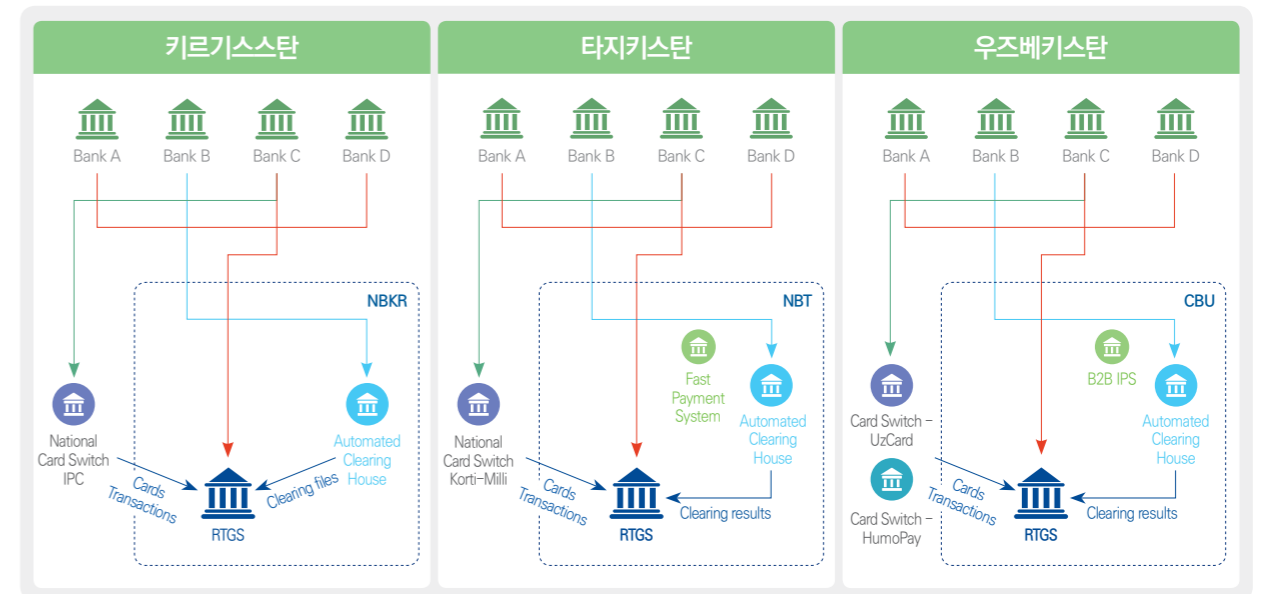
Ahmed Faragallah 금융부문 선임 담당관은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지급결제시스템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내용에 앞서 중앙아시아 전반의 금융서비스,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 인프라,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중앙아시아 세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 인프라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에는 여러 상업은행이 있으며, 대부분 중앙은행과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을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RTGS를 통한 자동 청산소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IPC는 카드 인프라, 카드결제 시스템 및 제3자 처리기관의 역할과 지급결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PC는 신속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타지키스탄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키르기스스탄과 유사한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높은 수준의 금융 및 서비스 접근성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으나, 현재 구축 중인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을 통해 전자화폐나 카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활용도 증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 카드 브랜드인 Korti-Milli는 키르기스스탄의 IPC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으며, 전자화폐 계좌의 경우 은행만이 개설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 향후 규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은행이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했으며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대신 기업 대상의 B2B 송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UzCard와 Humo(HumoPay)의 카드 인프라는 인구 대비 높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으나 두 인프라 간 호환성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이러한 호환성 개선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카드 및 전자화폐 활용도 증대와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Ahmed Faragallah 금융부문 선임 담당관은 세계은행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진행한 법률 및 규제 개선, 감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여러 프로젝트들을 언급하며 세 국가의 지급결제 및 금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가별 지급결제 인프라



## 우즈베키스탄 금융환경 및 진출 경험

오성엽 | 팀장 | KDB산업은행



오성엽 팀장은 우즈베키스탄 금융환경과 KDB산업은행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진출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및 경제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금융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환경은 2017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경제 및 금융시스템 개혁으로 외환자유화와 결제통화(UZS) 통일 등을 발표 및 시행하면서 혁명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정부고시 환율을 시장 환율에 맞게 고시하면서 하루 만에 약 50%의 자국통화 평가절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물가상승률도 오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우즈베키스탄 재무부가 지하경제 발생 원인을 결제, 지급, 서비스 품질, 고율 대출이자 등의 은행 시스템의 문제로 간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했다. 2017년 9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있기 이전의 우즈베키스탄 은행산업은 만성적인 외화 부족으로 인해 현금이 제한되었고, 은행의 단일화된 회계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자국통화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한편, 오늘날에는 은행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VISA 카드 영업, 핀테크·QR코드·NFC 결제시스템 도입 등 금융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오성엽 팀장은 우수한 KDB신용도를 바탕으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유치한 외화예금을 재원으로 수수료 사업(환전, 무역금융, T/B), 보수적인 대출운영, 홍콩 등의 M/M을 활용한 여유자산을 운영하여 수익 창출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수한 현지 인력을 활용한 현지화와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당시의 성공적인 진출요인으로 뽑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즈베키스탄에서 결제시스템, 핀테크, 인터넷뱅크 등의 수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

전문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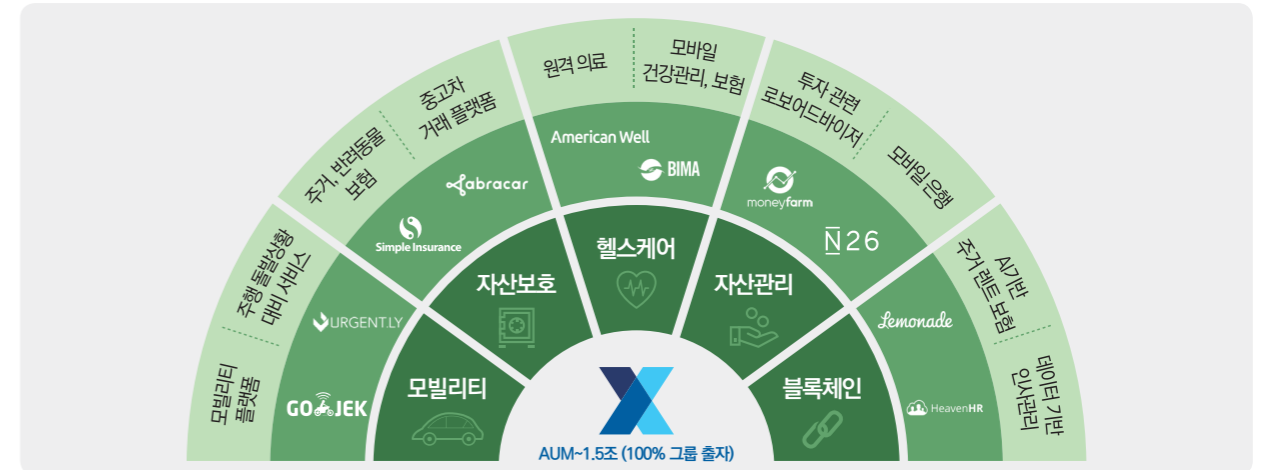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0년 11월 19일(목)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보험사의 벤처 투자 사례 및 보험사 간의 협업사례를 검토하고 코로나 시대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Boston Consulting Group 김형곤 MD파트너, justInCase 이신애 이사, Asia Aon Inpoint Andrew Hare 상무이사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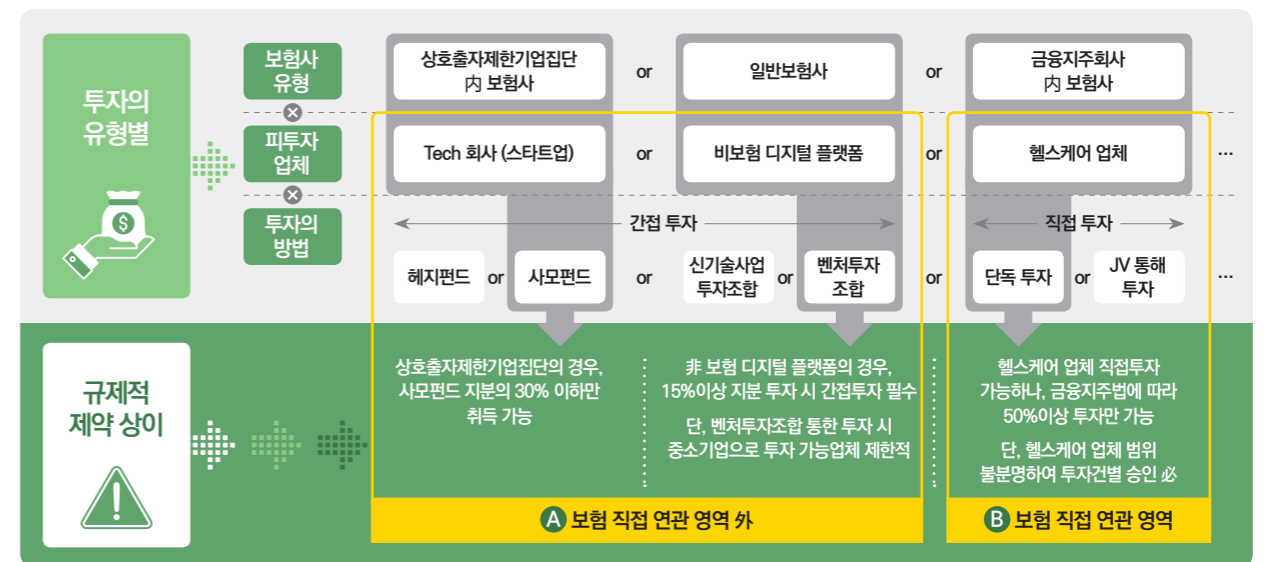
## 보험사의 벤처 투자: 사례 및 확대 방향성

김형곤 | MD파트너 | Boston Consulting Group

김형곤 MD파트너는 ① 해외 금융사 및 보험사의 벤처투자 사례, ② 국내 법규 및 제약, ③ 보험사 자산운용 전략, ④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오늘날 국내 시장의 유동성 확대, 모험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사차익/비차익 자원 하락 추세 등을 예로 보험사의 벤처투자 확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보험사 직속 벤처캐피털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Allianz X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은 동남아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본수익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디지털 고객 접점을 활용하여 보험을 영업하는 등 그룹 전체 차원에서 벤처캐피털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수의 보험사가 인접 사업 진출을 위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벤처투자 산업은 규제 산업임을 고려할 때 국내 법규 및 제약을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법규는 보험사 유형, 피투자업체, 투자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의 복잡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정책적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제약 외에도 투자구조 구축 및 투자 실행에 있어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제약 및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 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시장에서 선제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연간 약 1,000억 원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하에서는 해당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Allianz X와 Manulife의 사례를 들어 기존의 자산운용과 구분된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자산 조달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신계약 CPC 전략 운용이나 가장 보수적인 리스크 운영이 오히려 리스크 총량의 증가를 야기한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보험사는 리스크 운영 체계를 혁신시키고 자산운용의 역량을 고도화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 범위 및 리스크 확대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

전문가 초청세미나

## 일본 justInCase의 비즈니스 모델 소개 및 보험사와의 협업 사례

이신애 | 이사 | justInCase

이신애 이사는 일본 justInCase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다른 보험사와의 협업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justInCase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이지만, 보험상품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반적인 보험회사와는 차별화를 두어 새로운 툴을 도입하거나 보험 평가 체계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2019년에는 justInCase와 동일한 주주 아래에 justInCase Technologies를 설립 후 기존 justInCase에서 성공적이었던 시스템의 일부를 추출하여 노코드 툴(No-code tool)을 만드는 등 현재는 상품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justInCase가 진행해 온 다이이치 생명보험회사, 폰타, DeNA, Lifenet과 Nissay 등 다양한 금융사 및 보험사와의 협업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당사 또는 협업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대상층의 연령대를 낮출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레저보험, 상해보험, P2P 암보험 등 justInCase가 만든 상품을 생명보험사에서 대리대행 인가 취득을 통해 대리점으로서 판매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작업 이외에도 지금까지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보험사의 해외 진출 및 성장의 미래상

Andrew Hare | 상무이사 | Asia Aon inpoint

Andrew Hare 상무이사는 보험사들의 글로벌 사업확장 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보험업계의 미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Andrew 상무이사는 오늘날의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 무역협상 등 다양한 거시경제적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국내 보험사들이 성장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옵션을 소개했다. 우선, 국내에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유기적 옵션으로는 ① 국내 시장 침투율 제고, ② 새로운 고객군 공략, ③ 기존 시장 내 신규 상품 및 솔루션 제공을 제시했고, 이어서 해외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옵션으로 ④ 글로벌 시장 진출, ⑤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 ⑥ 경쟁사 합병 및 인수를 설명했다. 여섯 가지 전략 중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선정해 추진 시에, 해외 진출에 적합한 대상국가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 보험료 성장률, GDP 성장률, 정치적 환경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시장 매력도 평가지표를 분석해야 하고, 해당국의 시장 및 경제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시장 변동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보험사의 해외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들어 보험사들이 시장과 상품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속해서 파악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Andrew Hare 상무이사는 인구변화, 도시화, 기술 의존성, 디지털화 등 향후 보험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을 이러한 변화와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권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발전현황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방향

전문가 초청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0년 12월 1일(화)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발전현황 및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아시아개발은행의 Syed Ali-Mumtaz H. Shah 금융 부문 책임 담당관과 International Securities Consultancy의 Zulf Mir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 아시아개발은행의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개발 프로그램 소개

Syed Ali-Mumtaz H. Shah | 금융부문 책임 담당관 | 아시아개발은행

Syed Ali-Mumtaz H. Shah 금융부문 책임 담당관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동 프로그램은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개혁의 설계 및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부문은 중개 역할이 미흡하여 은행 자산이 국가 전체 금융 자산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은행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보여 금융 중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파악한 핵심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제한된 역량 및 규모 개발이며, 그 세 가지 원인은 ① 비효율적인 시장 촉진, ② 한정된 증권 수요, ③ 한정된 증권 공급이라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기반하여 해당 프로그램은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시스템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에 중점을 두고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해나가도록 진행된다고 언급하였다. 각 개혁 분야에 대한 부차적인 프로그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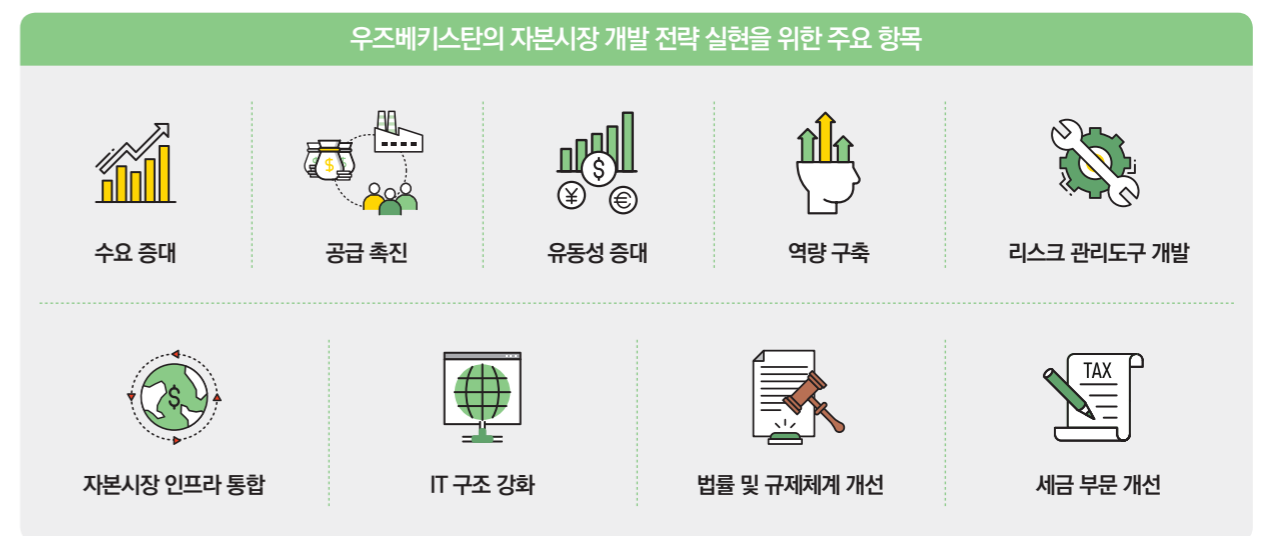
	1차 하위 프로그램 (예정)	2차 하위 프로그램 (예정)
개혁부문 ① 시장 촉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인 금융시장 개발 전략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Law) 및 자본시장개발법(CMDA Law) 의회 제출</li> </ul>
개혁부문 ② 증권 수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채무법(Public Debt Law) 내각 제출</li> <li>고객 온보딩(on-boarding) 방식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기금 개발규제기관 설립</li> <li>보험 부문의 규제감독 강화 관련 규정 제정</li> </ul>
개혁부문 ③ 증권 공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단기금융시장 상품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펀드, REIT, ETF의 발행에 대한 규정 승인</li> </ul>

마지막으로, 동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이사회로부터 승인될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장기적인 금융시장 개발을 목표로 아시아개발은행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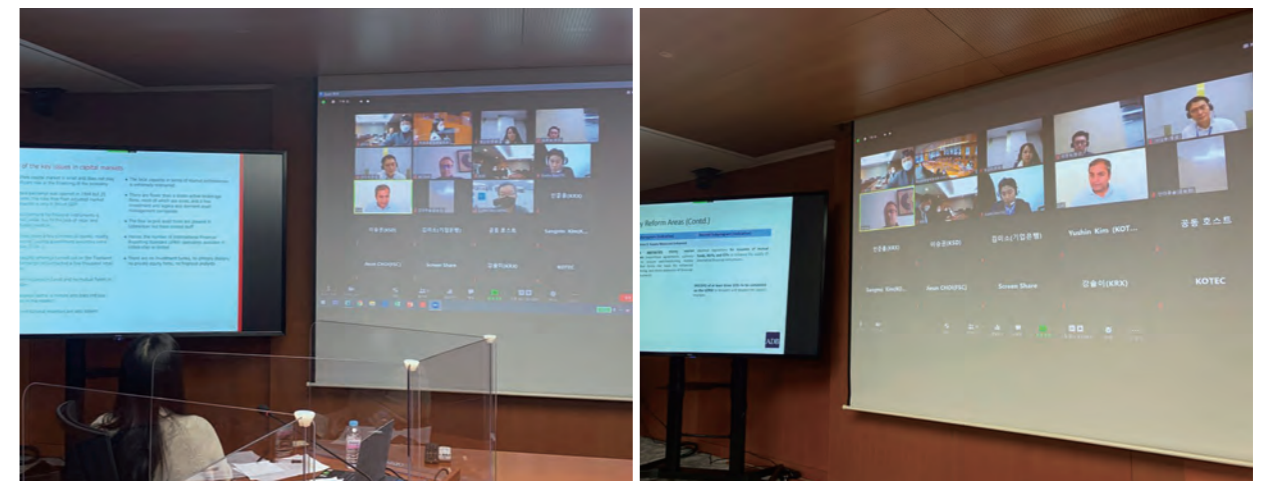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금융시장 개발 전략(안)

Zulf Mir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International Securities Consultancy

Zulf Mir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International Securities Consultancy(ISC)에서 지원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가 금융시장 개발 전략(안), 그중에서도 자본시장 개발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자는 비교적 작은 우즈베키스탄의 자본시장 규모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을 밝히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개발 전략(안)은 우즈베키스탄의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을 분석하여 2025년까지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목표는 ① 시장 규모의 확대, ② 시장 참여자의 확대, ③ 시장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Zulf Mir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개발 전략(안)을 실현할 이니셔티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아래의 9가지 항목을 언급했다.



위의 항목 중에서도 법률 및 규제 기반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Law), 자본시장개발법(CMDA Law), 투자펀드법, 연기금의 법적 체계 등의 제·개정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신북방국가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연구용역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신북방국가 중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의 진출 희망 수요가 가장 높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3개 국가별 경제·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위탁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감독제도, 금융업권별 시장 및 산업 규모 등을 분석하여 해당국에 대한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상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 유망분야 식별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외부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국가별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선임연구위원(카자흐스탄 연구용역), 인하대학교 성동기 조교수(우즈베키스탄 연구용역),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아제르바이잔 연구용역)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 7월 29일(수)부터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총 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 카자흐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이상제 | 선임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카자흐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위탁연구용역은 카자흐스탄의 금융산업 및 금융 인프라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동 연구 내용은 카자흐스탄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모기지 대출기관 및 비은행금융기관,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 등 금융업 전반의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금융인프라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증권거래소, 중앙증권예탁원뿐만 아니라 2018년에 공식 출범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는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금융 허브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해당 연구용역에서 관련 법규를 다루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즈베키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성동기 | 조교수 | 인하대학교



우즈베키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위탁연구용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인 경제와 금융환경을 분석하고 현지 금융업(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전당포업 등)의 법적 토대, 운영 및 감독 체계,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동 연구내용은 2016년 취임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2017-2021년 5개년 개발전략' 발표로 현지 경제시스템의 개혁이 단행되면서 급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금융환경과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를 다면적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장기간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현지 법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현재 우즈베키스탄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차원을 넘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지로 진출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했다.

## 아제르바이잔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한재준 | 교수 | 인하대학교



아제르바이잔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 위탁연구용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금융환경을 나누어 고찰하고 외국인 투자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진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연구 내용은 아제르바이잔의 경제환경 및 금융환경 이해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 현황, 경제구조, 성장잠재력, 대외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은행산업, 자본시장, 외환시장, 보험산업 및 금융감독제도 등 금융환경을 개관하였다. 나아가,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향후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계획, 국내의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 동향, 외국계 금융회사 진출 현황, 국내기업의 진출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연구용역 본문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홈페이지 (cifc.or.kr) 연구용역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

## 1월 2020년도 정기총회

<b>일시</b>	2020년 1월 31일(금) 15:00~16:00
<b>장소</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b>참여기관/인원</b>	21기관 / 35명
<b>안건</b>	2019년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20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안, 2020년도 운영규정 개정안, 2020년도 연회비 납부 의결

03

## 3월 정례회의

<b>일시</b>	2020년 3월 27일(금)
<b>장소</b>	서면회의*
<b>안건</b>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지원 및 화상회의 장비 구입(안) 의결, 전문가 초청세미나, 인도네시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CIFIC BiAnnual 및 Annual Report 등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04

## 4월 정례회의

<b>일시</b>	2020년 4월 24일(금)
<b>장소</b>	서면회의*
<b>안건</b>	CIFIC BiAnnual 및 Annual Report, CIFIC 브로슈어 등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06

## 6월 정례회의

<b>일시</b>	2020년 6월 26일(금) 15:00~16:00
<b>장소</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b>참여기관/인원</b>	16기관 / 25명
<b>안건</b>	CIFIC Annual Report, CIFIC 브로슈어, 신북방국가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연구용역 등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07

## 7월 정례회의

<b>일시</b>	2020년 7월 31일(금) 15:00~16:00
<b>장소</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b>참여기관/인원</b>	20기관 / 27명
<b>안건</b>	CIFIC 브로슈어, 신북방국가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연구용역, 코로나 시대 금융기관 해외사업 추진전략 세미나,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09

## 9월 정례회의

<b>일시</b>	2020년 9월 25일(금) 16:00~17:30
<b>장소</b>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b>참여기관/인원</b>	18기관 / 28명
<b>안건</b>	신북방국가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연구용역,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I, II, III, IV 등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10

## 10월 정례회의

<b>일시</b>	2020년 10월 30일(금) 15:00~16:00
<b>장소</b>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b>참여기관/인원</b>	18기관 / 28명
<b>안건</b>	신북방국가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연구용역,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II, III, IV 등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11

## 11월 정례회의

<b>일시</b>	2020년 11월 27일(금)
<b>장소</b>	서면회의*
<b>안건</b>	신북방국가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연구용역,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II, III 등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논의, 2021년도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일정 조사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12

## 12월 정례회의

<b>일시</b>	2020년 12월 18일(금)
<b>장소</b>	서면회의*
<b>안건</b>	신북방국가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연구용역 등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 논의, 2021년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사업계획 관련 수요조사 실시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서면회의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서면회의로 대체



발행일 | 2021년 2월 28일

발행처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층

전화 | 02-3705-6254

팩스 | 02-3705-6288

홈페이지 | [www.cifc.or.kr](http://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